

로마서 1-4 장

8/14 월요일

롬 1:1-4, 8-15

- 1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요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습니다.
- 2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 3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 4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8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 9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 10 이제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나아갈 험통한 길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 11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눠 주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인데,
- 12 그것은 곧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을 통해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 13 형제님들, 내가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열매를 얻으려고 여러분에게 가기로 몇 번이나 작정하였지만, 지금까지 방해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 14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빛진 사람입니다.
- 15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15 화요일

롬 1:16-25

- 16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 17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됩니다.
- 19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 20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만드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 21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생각하는 것들이 허망하여지고 깨달음 없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 22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 23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들과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같은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습니다.
- 24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 25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맞바꾸고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지만,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8/16 수요일

롬 2:1-4, 17-21, 28-29

- 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을 유죄판결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그대도 같은 짓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 2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짓을 일삼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 3 그런 짓을 일삼는 이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짓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4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을 그대가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그토록 인자하시고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 17 그런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 18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며 더욱 뛰어난 것들을 분간할 줄 안다 합니다.
- 19 또 눈먼 이의 길잡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요,
- 20 어리석은 이들을 바로잡는 사람이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대는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합당한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 21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 그대가 어째서 그대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전파하는 그대가 어째서 도둑질합니까?
- 28 왜냐하면 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외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29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어서 영 안에는 있고 율법 조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8/17 목요일

롬 3:9-20

- 9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 10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 11 깨닫는 이도 없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도 없다.
- 12 모두 빛나가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 14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 15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재빠르다.
- 16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 17 그들은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한다.
- 18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 19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것이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0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분명히 알 뿐이기 때문입니다.

8/18 금요일

롬 3:21-31

21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신언서를 통해 증언된 것입니다.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습니다.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25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해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지나쳐 가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26 지금 이때에 그분의 의를 나타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27 그러니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의 법으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28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29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물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30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례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할례자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십니다.

31 그러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율법을 없앴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8/19 토요일

롬 4:3, 7-13, 20-25

3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였습니다.

7 “불법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8 주님께서 결단코 죄 있는 자로 여기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9 그러면 이 복을 할례자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0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 받은 후입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입니다.

11 그런데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의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할례 받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여 그들도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12 또한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그런 할례자의 조상도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3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주어진 약속, 곧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22 그러므로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23 이제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4 의롭다고 여겨질 우리, 곧 예수님 우리 주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5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8/20 주일

갈 2:16, 20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갈 3:2-6, 22

2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3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그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하게 되려고 합니까?

4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받았습니까?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었습니까?

5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을 넘치게 공급하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6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갈 5:6

6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엡 3:12

12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빌 3:9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히 12:2

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